



상피병 연구에 주력

傳統 지키는 小數精銳의 연구팀

아직도 따가운 햇빛이 내려쬐이는 초가을의 날씨, 이날따라 서울의대 구내는 조용하
기만하다. 서울대학본부의 관악캠퍼스 이전때문인지 마주보이는 구(旧) 문리대 본부건
물이 마냥 쓸쓸하기만 하다.

그러나 연구의 전당으로서 의대건물은 너무나 의젓한 대조를 이룬다.

조용한 연구실에서 서울의대 기생충학 徐丙高주임교수는 차분히 기자를 맞이해준다.
임상을 떠난 기초교실인 때문일까? 학자풍이 잔잔한 미소는 매서우면서도 온화하다.

- 일제시대에도 우리 서울의대 기생충
학교실은 전통과 권위가 있었읍니다.

1920년경 (그때는 서울대학 병원
이 대한의원이라 불렀다)에 당시 기
생충학계의 권위이신 小林 주임교수
가 미생물학교실에서 기생충학강
좌를 맡고 계셨죠. 小林교수는 간

지스토마, 페지스토마 등의 중간 숙
주를 발견하신 세계적인 분입니다.

그 이후 우리서울대학교 의과대
학 기초학교실로 성장, 오늘에 이르
고 있습니다. 해방후에는 許遠선생
님이 미생물학교실 주임교수로 계
셨습니다. 그후 1974년에 내가 (석
박사) 미생물학교실의 許先生님 밑

에서 기생충학을 工夫하고 있었지요. 그 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954년에 의과대학에 기생충학교실이 독립이 됐지요.

작년(1974년)에 기생충학개강 2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실로 뜻깊은 일이었읍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업적목록(業績目錄)도 조그마 하나만 발간했습니다.

-현스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나(徐교수)이외에 현재에는 조승렬전임강사와 강신영조교, 그리고 테크니산 2명이 있습니다. 고려의대로 가신 林漢鍾교수, 중앙의대로 가신 李純炯선생들도 우리교실 출신들입니다.

-그러면 현재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계신 학문은 어떤 主題입니까?

10여년 이래(1964년 이후) 상피병(일명 사상충병 또는 휘라리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지요. 전국의 사상충 분포를 규명했고 특히 제주도에는 우리 기생충학교실 직할 기생충연구소가 있어 지금도 집단치료를 하고있으며 매개곤충의 생태와 전파 경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간지스토마, 페지스토마등 조사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기생충연구분야의 최근 동태나 주된 연구과제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독일 문헌에서 제3차 세계기생충학회가 있었습니다.

추세로 볼때, 번역학에 주로 연구

관심이 있는것 같고 특히 화학요법이 주된 연구과정인것 같습니다.

-혹시 대민(對民) 기생충박멸 사업에도 관여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하는일은 주로 연구과정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라 국가적인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본자료등을 채취하는것이고 대민업무는 기협(寄協)등에서 할일이지요. 우리나라엔 주로 토양매개성 기생충이 많은데(예: 회충 12지장충 촌충) 특히 회충이 많습니다.

寄協등에서 학교검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 대중에게도 확대 실시하면 하루라도 빨리 구충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 말이지만 우리도 간디스토마, 상피병, 페디스토마등 풍토성이 농후한 병은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기협활동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먼저 말한 병들의 연구활동을 활발히 해서 기초연구의 완벽을 기해야만 기협에서도 위에서 말한 여러병의 구충에 손을 댈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임무가 중차대하지요.

× ×

조용한 교실 분위기가 한결 따뜻하다. 스탓진이 적어서인지 가족적 유대가 더욱 정이드는 풍경이다.

오늘도 현미경과 싸우는 연구실의 모습에선 온 인류의 적인 기생충을 박멸하려는 진지한 열기로 성자의 사도 마냥 성스럽기만 했다.

<C記>